

강제 장기적출 반대 세미나, 미국 수도에서 개최 의학윤리에 관심집중

[밍후이왕] 2018 년 7 월 26 일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모임’은 워싱턴 DC 외국대사관 구역에 위치한 코스모스 클럽(Cosmos Club)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당일은 미국 국무부에서 주최한 제 1 회 ‘종교자유촉진’과 관련한 주제의 장관급 회의가 열린 마지막 날이기도 했다. 세미나는 수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국에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당해 살해된 것은 종교자유를 수호해야하는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제 장기적출은 실체를 숨긴 집단학살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모임’의 집행주임 톨스턴 트레이(Torsten Trey) 박사는 말했다. “1999 년 7 월 이후 중국공산당은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중국에는 7 천만에서 1 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파룬궁을 수련했습니다. 강제 장기적출은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잔혹하게 박해한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는 강제 장기적출의 배후 시스템은 실체를 숨긴 집단학살이었다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그런 잔혹한 박해수단은 파룬궁을 말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제시카 루소(Jessica Russo) 의사는 ‘실체를 숨긴 집단학살(Cold Genocide)’의 개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즉 몰래 한 단체를 점차적 지속적으로 제거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박해는 바로 실체를 숨긴 집단학살인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육체, 심리, 정신과 사회생활 등등의 방면에서 가혹한 탄압을 가했는데, 그 수단과 방법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자행해오면서 점차 중국사회에서 ‘정상화’로 만들었다. 그런 음흉한 강제 집단학살은 피해자에게는 치명



■ 제시카 루소(Jessica Russo) 의사
·
적인 것이다.

루소 의사는 회의에 참가한 의학계 전문가들에게 중국에서 발생한 잔혹한 장면을 상상해보라고 했다. “경찰이 갑자기 당신에게 신앙이 있다는 이유로 당신을 체포해 각종 형구로 당신을 고문합니다. 당신이 여성이라면 옷을 다 벗겨 남자죄수가 수감돼 있는 감방에 집어넣습니다. 경찰은 상처투성이인 당신을 끌고 가서 복잡한 신체검사를 하는데 특히 혈액형과 장기를 검사합니다. 또 당신은 구타와 고문을 당하면서 경찰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의 몸 어디든지 구타해도 되지만, 절대로 내장은 다치게 해서 안 된다.’ 당신은 또 다른 장기수로부터 ‘양심수가 감방에서 끌려나간 후 생체 장기적출 당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이 다음 차례에 장기 공여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후 어느 날 감방에서 끌려 나가 수술대에 던져집니다. 수술대는 모두 의료진과 경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일종 약물을 주사해 당신은 온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각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예리한 메스가 당신의 피부를 가릅니다. 그런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죽이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미나에서 한국 4 대 종합 TV 방

송국 중의 하나인 ‘TV 조선’에서 중국 텐진에서 촬영한 장기이식에 관한 기록영화를 방영했다. 제작팀은 2017 년 한국 환자가족 신분으로 텐진의 장기이식 병원을 방문해 장기 ‘구매’ 경위를 직접 촬영했다. 이 한 병원에서만 최근 3 년 동안 3 천여 명의 한국인 환자가 장기이식을 받는 수술을 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간이식 대기시간이 최소 5 년이 필요하지만, 중국 텐진에서는 19 만 달러만 지불하면 10 여 일이면 이식을 받을 수 있으며, 돈을 더 많이 지불할수록 더 빨리 이식을 받을 수 있다. 기록 영화에서 폭로한 데 의하면 그 중 일부 집도의사는 미국에서 훈련 받았고, 유창하게 영어를 했다.

의사들과 관련 행동을 탐구

세미나에 참여한 의사들은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수련생 장기를 강제적출한 만행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모두 이런 만행은 의학계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윤리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타대학 의학 부교수 글린 웰던 길크리스(Glynn Weldon Gilcrease)는 강조했다. “파룬궁수련생 장기를 강제적출 하게 한 것은 중국공산당 정부가 비준한 행위입니다.” 그는 의사협회 등 관련기관의 규약과 윤리규정을 더 강화해 의사가 유사한 부도덕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미국 의과대학에서는 중국에서 온 이식의사 훈련을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길크리스 교수는 미국 국무부가 비자 신청과 출입국관리에서 장기이식과 관련한 정보를 더욱 상세히 적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강제 장기적출에 참여한 의사는 미국 입국을 금지시키고, 중국으로 장기이식을 받으러 가는 미국인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생각해 결정하라고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

‘진선인’에 동화되어 청춘을 빛나게 하다

[밍후이왕] 2018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세계 각지에서 온 일부 파룬궁수련생들이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반(反) 박해 집회 행진 활동을 벌였다. 모든 활동에서 청년 수련자의 모습이 한 무리 한 무리 눈에 띄었다.

뉴욕 시립대 버록 칼리지(Bernard M. Baruch College, CUNY)에서 공부하는 류위천(劉禹辰)씨는 그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제가 법을 얻은 것은 아주 행운입니다. 수련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를 열어주기에 학업에서 저는 아주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은 사업학원이기에 학생들이 암투(暗鬪)를 벌이며, 이익, 사회지위를 위해 고생스럽게 분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파룬따파 진·선·인(眞·善·忍)의 원칙이 저를 바로 잡아주어 도덕성이 하락하는 거센 흐름 속



■청년 파룬궁수련생: 류위천(劉禹辰-앞줄 좌 1), 자닝(佳寧-뒤줄 우 2)

에서 사회에 미혹되지 않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 명문대학에서 공부하는 청년 수련생들이다. 그중 일부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 파룬궁수련을 했으며, 중국공산당의 참혹한 박해의 역경에서 성장했다. 그들은 친인이 박해받아 생사 이별을 친히 겪었으며, 중공의 사악한 행위를 직접 목격했다. 또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사람들이 인류의 도덕성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

는 것을 실증했다.

미국 최고의 컴퓨터전문 교육으로 유명한 카네기멜론대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자닝(佳寧)씨는 “어려서부터 중국공산당이 어머니를 체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학교를 다니면서 매년 전학을 했다.” 외부의 압력은 아주 컸다. 비록 고생을 겪었으나 그는 여전히 파룬궁수련을 선택했다.

청년수련생들이 근 만명으로 모인 집회대행진에는 아무런 금전이익이 없으며, 다만 진·선·인(眞·善·忍)을 널리 전하기 위해 모두들 뜨거운 햇빛을 머리에 이고, 끝없는 장거리 행진을 하거나 비바람 속에서 빗물에 앉아 촛불을 들고 밤을 새운다고 했다. 이번 생애 파룬궁진상을 알리고, 진·선·인(眞·善·忍)에 동화되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그들이 책임과 사명이라고 그들은 인식했다. ◇

지린성 여자감옥의 “100일 대전”

[밍후이왕] 2018년 5월부터 지린성여자감옥에서 일부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강제전향을 실시해 불법으로 엄관대(嚴管隊)에 가두고 가족면회를 못하게 하고, 전화를 걸지 못하게 했으며, 음식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고, 매달 소비를 20 원으로 제한했으며, 아침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강박으로 울퉁불퉁한 형벌겔상에 앉게 했다.

현재 감옥에서 “100 일 대전”활동을 크게 해 파룬궁수련생들이 잔혹한 고문에 시달리고 있다. 예를 들면 감옥 경찰은 진·선·인(眞·善·忍)의 신앙을 포기하고 전향하라고 파룬궁수련생에게 음식물을 강제 주입하고, 손가락을 비트는 등 여러 가지 잔인한 고문을 감행하고 있다.

지린성여자감옥(또 창춘헤이쭈이쯔여자감옥이라 부름)은 십여년 동안 중공중앙 610, 지린성 ‘610’의 사주를 받아 ‘백 퍼센트 전환율’을 실현하기 위해 잔

인한 수단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다. 원 감옥장 자방신(賈秉新)、우쩌원(武澤云)등은 파룬궁수련생을 전문으로 박해하는 감금구역을 설립했으며, 감옥 경찰은 악인과 범죄자를 사주해, 잔혹한 수단으로 파룬궁수련생을 고문 구타했다. ‘속박고문’ 즉 ‘사지를 묶어 놓고 달아매기(四肢上繩)’, ‘비행기를 운전하기(開飛機)’ 등 달아매는 형벌을 위주한 폭력과 거짓말 세뇌였다. 수많은 파룬궁수련생들이 박해로 불구로 되었고 심신에 엄청난 상해를 입었다. ◇

수련생들이 받은 일부분 고문시연



허공에 달아매기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 폭결상 앓기 밧줄로 묶기

당나라 현장(玄奘)이 직접 겪은 기적



[밍후이왕] 어릴 때 ‘서유기’를 참 즐겨 봤지만 어른이 되어서야 그런 당승이 역사상의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의 속명은 진의(陳祿), 휘양 거우스(緱氏, 오늘날의 허난옌스) 사람으로 법명은 현장(玄奘)이다. 당나라 시대의 유명한 삼장법사이고 후세에 속칭 당승으로 불리었다. 그는 불교 원전(原典)을 연구하기 위해 서역으로 5만 리 길을 가서 천축(天竺, 인도)에 도착해 법을 구했다. 19 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당태종의 칙명을 받고 현장은 서역에서 그가 겪은 견문기를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라는 책으로 펴냈다.

이 책은 현장이 구술하고 제

자 변기(辯機)가 정리했다. 이 저작은 역사문헌 및 고고학적 발견과 완전히 일치해 그 진실성을 이미 전 세계가 공인했다. 이후의 ‘서유기’는 현장의 사적(事跡)을 바탕으로 창작한 것이다.

나는 ‘대당서역기’를 읽은 후 역사상의 진정한 당승이 소설 속 당승보다 더욱 존경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느꼈다! 그는 속인이 완성할 수 없는 임무를 완성했다. 800 리 대사막을 가로지르고, 일년 내내 눈이 쌓인 대설산을 넘고, 천년간 녹지 않는 빙하를 건넜으며, 길에서 또 강도와 산적들의 소란을 겪었고 각종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었다. 정말로 81 년 그 이상이었다!

보면서 내 머릿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혹이 많았다. 110 개국을 지나가면서 그 많은 나라의 말을 어떻게 이해한 것일까? 그 19 년간 병이 나면 어떻게 했을까? 길에서 특히 인적 없는 광야에서 음식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산적, 강도, 적수, 군주들(고창왕, 계일왕, 구마라왕, 당태종, 당고종 등)을 비롯한 그 많은 사람이 왜 그를 경배했을까? 더 불가사의한 것은 책에 현장이 직접 겪은 많은 기적이 기재된 것이었다. 예를 들면 향니

(香泥)를 쓴 비단으로 불정골(佛頂骨)에서 인(印)을 떠서 보리수 도안을 얻거나, 800 리 막하연적(莫賀延磧) 사막을 지날 때 4 박 5 일을 물 한 방울 없이 염불하며 걸어나간 것이다. 그가 또 불영굴(佛影窟)에서 경건하게 엎드려 절을 하자 석가모니 부처가 끝내 암벽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 모든 것은 무신론자였던 나에게는 대단히 큰 충격이었다.

2005년, 간암 말기였던 나는 각종 질병까지 더해 병원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그 때 어쩔 수 없이 파룬따파(法輪大法, 또는 파룬궁)를 수련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질병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내 몸에서 많은 기적이 나타났다. 사부님의 법신(法身)을 보았고, 사부님께서 ‘전법륜’에서 말씀하신 신기한 일들 중에 일부를 나도 경험했다. 내 주변 파룬궁 수련인들에게도 많은 기적이 나타났다. 마침내 나는 신이 정말 존재하며, 현장법사 역시 속임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역사상 진정한 현장의 사적이건 ‘서유기’ 소설이건 모두 오늘날 인류가 참조할 수 있게 다져놓은 신전(神傳)문화이다. ◇ (문/저우밍리)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 “리 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밍후이왕] 파룬따파(法輪大法)의 불광이 우리 온 가족을 밝게 비춰 주었다. 저는 대법제자의 가족으로서 존경하는 리 대사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마음속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다), 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다)”

한 사람의 연공하니 온 가족이 이익을 얻다

우리 어머니는 올해 70 세이다. 하지만 보기에는 50 대처럼 보이는

데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렇게 본다. 어머니는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기 전에는 온몸에 병이 있었다. 얼굴색은 누렇게 체중은 40kg 에 불과했다. 하루 종일 수심에 잠겨 양미간을 찌푸렸고 성품은 불갈았다. 의심이 심해서 식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기적 이어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 특히 아버지를 조금도 포용하지 못하고 만나면 말다툼하거나 때리고 싸웠다. 결국 두 분은 이혼했고 이로 인해 자식들은 직

장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자식들은 걱정과 고민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때쯤부터 어머니는 대법을 수련하기 시작하셨다. 수련 후 어머니의 각종 질병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안색이 불그스름하게 생기가 돌았고 체중도 7~8kg 늘었다. 어머니는 일에 부딪히면 항상 남을 배려하여 식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졌다. 어머니는 항상 “사부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남들이 좋지 않게 대해서도 대법의 가르침대로 잘해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수련 후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시 합치셨다. 이제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화를 내도 어머니는 모두 참으셨다. 아버지는 감탄하시면서 “이제야 비로소 복을 누리게 됐다.” 고 말씀하셨다. (뒷면에 계속)

(앞면의 계속)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대법에 고맙다고 말씀하셔야 해요. 오로지 대법만이 나를 변하게 할 수 있어요.”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공감하셨다.

우리 할아버지는 올해 94 세의 고령이다. 어머니는 할아버지께 매우 효도하신다.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연공한 후 몸과 마음에 생긴 큰 변화를 보시고 대법에 대해 매우 감탄하신다.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신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真善忍好)”

할아버지는 또 “진선인(眞善忍)은 나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작년 어느 날, 할아버지는 밖에서 산책하다가 넘어지셨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갈비 뼈 두개가 골절되었다. 하지만 마음속에 진선인을 품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후에도 통증이 없이 회복이 빨랐다. 지금은 상태가 아주 좋다.

“파룬궁은 정말 좋아. 네 어머니

는 수련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선량한 사람으로 말이다.” 고모와 고모부도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가족은 대법의 혜택을 가득 받아 화기애애하고 즐거움이 가득해.”

어머니의 수련을 지지하자 나도 복을 얻었다

작년에 나는 갑자기 목소리가 막혔다. 말할 때 매우 힘들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는 목구멍에 용종이 있다면서 수술해서 떼어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집에 와서 나는 어머니께 이 상황을 말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대법은 못하는 것이 없단다. 사부님을 굳게 믿고 수술하지 말거라. 구태여 그런 고생을 찾아 할 필요가 있겠니? 진심으로 찌싼런하오를 생각하면 정말 신기한 일이 생길 거야.”라고 말씀하셨다. 이틀 후 내 목소리는 맑고 큰 소리를 낼 수 있었고 용종은 사라졌다. ‘진심으로 리 대사님께 감

사드립니다.’

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 전체가 불경기이고 많은 회사들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나의 작은 회사는 연간 수입이 100 여 만 위안(한화 약 1 억 6 천만 원)이다. 회사의 업무가 활발히 전개되고 각 사무 분야는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 100 여 만 위안은 나에게 있어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비록 나는 수련을 하지 않지만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모든 친척들은 파룬따파의 진상을 이해했고 사악한 장쩌민과 중공이 극도로 잔인하게 파룬궁을 박해하고 중국인을 속이고 독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고 있다. 공산당과 장쩌민 악당은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고 하늘이 멸망시킬 것이다.

선량한 중국인들이 모두 파룬따파의 혜택을 얻기를 희망한다.

리 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조선족 박해소식

손정옥은 선양시 황구구 법원에 의해 불법 3년 반 징역형을 선고 받다

[밍후이왕] 6 월 27 일, 라오닝 50 여세 조선족 파룬궁수련생 손정옥은 선양시 황구구 법원에 의해 무고하게 3 년 6 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1 만 위안을 벌금으로 갈취당했다. 가족은 이미 법에 따라 상소했다.

6 월 22 일, 황구구 법원에서는 2 차례 불법 심사에도 결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재차 불법 개정을 했다. 가족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손정옥을 위해 무죄변호를 하고 법에 따라 손정옥을 무죄로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6 월 27 일, 변호사는 법원에 가 법정심사 서

명을 했으며, 27 일 황구구 법원은 불법적인 모함하는 판결을 내렸다. 손정옥의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에 따라 선양시 중급 법원에 상소하려한다.

손정옥, 여, 50 여세, 테링 사람이고, 조선족 농민이다. 손정옥의 남편과 딸은 모두 한국에서 일한다. 손정옥은 선양 선베이 신촌(선양 항공 항천대학 부근)에 셋집을 맡았다.

2017 년 9 월 20 일, 선양시 황구분국국보대대 부대장 푸더취안(傅德权)이 경찰 디밍주(邸明柱)등 6~7 명을 거느리고 셋집에 뛰어들어 손정옥을 바닥에 넘어 뜨려놓고, 아무런 합법적인 수속도 내놓지 않은 상황하에 불법으로 집을 수색했다. 폭력으

로 수색하는 과정에 몇 개의 가구를 파손했으며, 손정옥의 집 열쇠, 셋집 계약서, 컴퓨터, 개인 핸드폰과 책 등을 강그리 약탈해갔다 컴퓨터 포장 가방 안에 있던 1300 위안 현금도 없어졌다. 손정옥은 폭력에 의해 납치되어 불법으로 선양시 제 1 구치소에 감금당했다.

손정옥의 친구는 푸더취안에게 전화를 해 사람을 내 놓으라고 했는데 푸더취안은 크게 욕설을 퍼붓었으며, 또 내가 그녀를 때려죽인 다음 다시 말하자고 했다.

2018 년 3 월 12 일 오전 9 시 30 분 황구구 법원은 손정옥을 불법 심사하려했으나 아침에 법원에서 선양 제 1 구치소로

가는 도중에 경찰차가 길에서 고장 나 불법 재판을 진행하지 못했다.

2018 년 5 월 17 일 오전 10 시, 황구구 법원은 다시 불법 재판을 열어 손정옥에게 판결을 내리려고 했다. 법적 심사가 시작되자 변호사는손정옥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며, 무신론자가 유신론자에 대해 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검찰 공소인과 법원의 주심판사가 안건에서 회피할 것을 신청했다. 이 제안으로 진권(金军) 주심판사는 휴정을 선포했다. 1 시간 후 검찰이 신청을 기각하고 진권은 개정 시간을 다시 상의한다고 했다. ◇